

강진군 옛 성화대, 청년창업·4차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330억 투입 2026년 말 준공 목표
지역 특화산업 융합 기능 수행
전라남도 균형발전 공모 선정
청년·기업 동반 성장 환경 조성

전라남도 강진군이 옛 성화대 유희시설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4차 산업 기술을 아우르는 '청년 글로벌 플랫폼'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공모를 마치고,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2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옛 성화대 유희시설을 청년 창업과 4차 산업 기술 융합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총 330억원(국비 200억원·군비 130억원)이 투입되며, 드론·ICT 등 4차 산업 기반의 실험 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위케이션 이용객을 위한 숙소와 복합문화 공간까지 갖춘다.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 지역의 역사성과 미래 전략산업

을 동시에 품은 '신(新)복합청년기지'가 될 전망이다.

실감 미디어 체험관 등 문화 콘텐츠도 함께 구성되며, 창업과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년 강진'의 역사성을 반영한 공간 설계 역시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으로 꼽힌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효과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머무르고 도전하는 도시, 4차 산업 기반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강진군은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2023년 전라도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고, 2024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및 전라도 기본계획 승인 등을 완료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플랫폼 조성사업이 강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2025 목포시 영상 공모전
내달 27일까지 전 국민 참여 가능

전라남도 목포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5 목포시 영상 공모전'이 개최된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목포를 소개하고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27일까지로 목포시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목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영상'으로 목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매력적인 관광지, 특색 있는 음식 등을 소재로 한 3분 이내의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장르는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총 5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1명 100만원 △장려상 3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는 이메일(seonju2780@korea.kr)을 통해 진행되며 수상자 발표는 7월 15일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목포시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되며, 시의 관광 홍보 및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061-270-3227)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무안군, 여름철 폭염 대비

전라남도 무안군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조기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방치 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군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무안종합병원과 협력해 오는 9월까지 응급실을 내원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온열질환은 △물 자주 마시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혈령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기 등의 건강 수칙 실천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헐렁하게 하고 물이나 이온음료 등 수분을 섭취하게 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여름 극심한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서는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무안군, 추가 지원 추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전라남도 무안군은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지원량은 141대(일반 113대, 우선 7대, 택시 21대)로, 차종별 지원금액에 따라 지원 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무안군인 사업자△무안군에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소재지를 둔 법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230만원, 최소 299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구매자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계약 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가 관내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영양 한 스푼, 청춘 두 스푼' 건강교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영양 한 스푼, 청춘 두 스푼'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14개 읍·면의 94개 경로당에서 1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보건소 전담 영양사가 직접 운영하며, 고령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춘 건강교실'과 연계돼 신체활동과 식생활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고령 어르신의 경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 만성질환 예방과 기초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생활터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본격화

기기 도입비 100만원 지원

전라남도 무안군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기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웨이팅보드 등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13개소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지원받거나 정책자금 제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기를

선구매한 후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신청서, 참여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제품 견적서 등을 갖춰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